

동아시아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조 동 일*

< 목 차 >

- I. 머리말
- II. 다른 문명권의 전례
- III. 동아시아문학사의 기존 작업
- IV. 새로운 방안 제시
- V. 마무리

<Abstract>

There are many studies of the history of European literature. But the history of East Asian literature has not yet been written. Such an unbalance must be redressed. The histories of so-called Eastern Literature (東方文學) published in China include all non European literatures and have no coherent system. We have to find the inner structure of East Asian literary history in the sphere of the tradition of written Chinese, which is comparable to the Latin heritage of European literature.

In the course of accomplishing a series of studies on literary history, from Korea scope to the world perspective, I presented some key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st Asian literature. They can be used as the starting point to write its whole history. Two pairs of binary opposition, *the noble* (華) and *the vulgar* (夷), as well as *the poem* (詩) and *the song* (歌) are the key concepts. *The noble* is the common ideal of East Asian civilization and *the vulgar* refers to national

* 서울대학교 교수

peculiarities. *The poem* uses the written Chinese, while *the song* is composed in vernacular language.

The combinations of these two pairs of key concepts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ra. In ancient times there was only *the vulgar song*. Confucian civilization, which spread from China, promoted *the noble poem*. Non-Chinese nations developed *the noble song*, along with *the noble poem*, during the medieval age. But in the time of the transition from medieval to modern ages, the newly appearing *vulgar poem* destroyed the chain of being. The modern age began when *the vulgar* triumphed over *the noble*, and *the song* took the place of *the poem*.

I. 머리말

문학사는 취급 범위가 작은 것부터 들면 [가] 지방문학사, [나] 민족문학사, [다] 문명권문학사, [라] 세계문학사의 넷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써야 하는 [나]는 한국문학사이고, [다]는 동아시아문학사이다. 나는 [나]에서 시작해 [다]를 거쳐 [라]로 나아간 다음 다시 방향을 바꾸어 [가]로 돌아섰다. 그 가운데 [다]에 관한 작업이 특히 미비해 이 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학사에 관한 저술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출간 연도순으로 들고, [가] · [나] · [다] · [라] 가운데 어디 해당하는지 앞에만 적으면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하나만 있는 것들도 [가1] · [나1]이라고 한다.

[나1] 《한국문학통사》 1-5, 별책부록 (서울: 지식산업사, 제1판 1982-1988, 제2판 1989, 제3판 1944)

[다1]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라1] 《세계문학사의 허실》 (서울: 지식산업사, 1996)

[라2] 《카타르시스 · 라사 · 신명풀이》 (서울: 지식산업사, 1997)

[다2]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다3]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서울: 지식산업사, 1999)

- [라3]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서울: 지식산업사, 1999)
- [라4]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서울: 지식산업사, 1999)
- [라5] 《철학과 문학사 돌인가 하나인가》 (서울: 지식산업사, 2000)
- [라6]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라7] 《세계문학사의 전개》 (서울: 지식산업사, 2002)
- [가1]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원고 완성 단계, 2002 출간 예정)

이제부터의 논의에서 [가]·[나]·[다]·[라]는 각기 지방문학사·민족문학사·문명권문학사·세계문학사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지칭한다. [가1]·[나1]·[다1]·[다2]·[다3]·[라1]·[라2]·[라3]·[라4]·[라5]·[라6]·[라7]은 각기 해당되는 책을 지칭한다.

문학사 가운데 [나]가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나1]을 쓰는 데 몰두했다. 구비문학·한문학·국문문학 상관관계의 역사를 원시문학·고대문학·중세문학·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근대문학의 전 기간에 걸쳐 자세하게 고찰했다. 전5권에다 별책부록이 붙어 모두 여섯 권이나 되는 분량인데, 이미 두 차례 개고했으며, 세 번째 개고를 한 제4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2004년에 낼 예정이다. [나1] 제1판을 내놓고 [다]로 관심을 확대했다. [나1]에서 얻은 성과를 [다]에 적용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다]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작업을 [다1]에서 했다. 동아시아 각국 일본·중국·한국·월남 순서로 쓰기 시작한 자국문학사 서술의 특징과 방법을 유럽의 전례와 비교해 고찰하고, 동아시아문학사 전개를 공통된 시대구분에 의해 이해할 가능성을 탐색했다.

[라]에 관한 작업을 시작한 뒤에 다시 [다]에 힘써 [다2]·[다3]을 내놓았다. [라]에 관한 새로운 구상이 여러 문명권에 널리 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 [다]에서 먼저 검증해야 되었다. [다2]에서는 구비서사시가 어떻게 생겨나고 변천했는지 밝히는 일반론 정립을 동아시아에서 먼저 시도한 다음 세계전체로 확대하는 작업을 했다. [다3]에서는 중세 동안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이 한 문명권 안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 각국문학이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졌던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예증을 동아시아에서 얻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다]보다 [라]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라1]에서 세계문학사 서술의 기존 업적을 모두 비판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통과한 힘들고 복잡한 과정에 [다2]와 [다3]이 포함되었을 따름이다. [라2]에서 연극, [다2]에서 서사시, [다3]·[라3]에서 서정시를 비롯한 중세 문학의 여러 양상, [라5]에서 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영역, [라6]에서 소설을 각기 고찰한 성과를 집약하고 필요한 내용을 더 보태 마침내 [라7]을 이룩하는 데 이르렀다. [나1]의 한국문학사에서 시작한 문학사 서술의 오랜 작업이 [라7]을 최종적인 성과로 삼아 일단 완결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학사를 크기에 따라 열거할 때 맨 앞에만 [가]를 버려둔 것은 큰 잘못이다. 이제 [가1]을 쓰는 작업을 뒤늦게나마 진행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라7]에서 이룩한 과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가장 작은 단위의 문학사인 [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렸다.

근대국가는 구성원이 단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나]의 문학사를 요청해 국민교육의 필수교재로 삼았다. 유력한 위치에 있는 [나]의 집합체가 [다]이고 [라]라고 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해온 것이 또한 문제이다. 나는 그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정치적 억압에 문학으로 맞서 [다]·[라]에서 커다란 구실을 하는 실상을 밝혀 논하려고 노력해 [라7]에 그 결실이 집약되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권위를 해체하는 [가]의 반론이 활기를 띠어야 근대인의 그릇된 사고를 시정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갈 수 있다.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것이 모두 소중하다고 선언하면서 박해받는 지방민이나 소수민족이 이룩한 문학유산은 인류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가]에 관한 광범위한 탐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나]·[다]·[라] 사이에 존재했던 우열을 역전시키는 것이 농사가 아니다. [가]가 [라]와 손잡고 [나]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릇된 우열을 바로잡는 대안은 그 넷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각기 그 나름대로 소중한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목표가 불분명해졌다고 나무라지 말기 바란다. 제한된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 우선 필요한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당연하다. 식민지 상태 청산과 분단 극복을 위한 각성의 근거가 되는 [나]에 대한 민족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진력하다가 [가]는 미처 돌보지 못했다. [라]를 위한 기본설계라도 일단 완결된 형태로 보여주어 그릇된 세계화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데 몰두해 [다]는 다루다가 말았다.

[가]를 위한 작업을 바람직한 내용과 수준을 갖추어 제대로 하는 것은 나로서는 역부족이어서 다음 연구자들에게 기대한다. 지방문학사는 혼자서 가로막을 수 없고, 서로 다른 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수많은 연구자의 분발이 필요하다. [가1]은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는 어설픈 주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다]를 [나1]이나 [라7] 정도의 체계를 갖추어 쓰는 것은 오랜 희망이다. [다1]·[다2]·[다3]에서 이미 한 작업이 있어 모으고 다듬으면 필요한 내용을 많이 찾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다. 시간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무리하게 나서지 않기로 한다. 최소한 5년, 어느 정도 충실한 결과를 기대하려면 10년은 필요한데, 나에게 그만큼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나의 외국어 능력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의 문학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 세계지도인 [라7]은 어차피 대강 그럴 수밖에 없으니 번역을 통해 이해한 자료가 많아도 어쩔 수 없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누가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변명할 수 있다. 세계문학사를 쓰기 위한 기본설계 초안을 제시한 것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작업이라고 해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문학사는 초안을 마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문은 물론이고, 중국어나 일본어에 능통하며 월남어까지 아는 사람이 넓은 안목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동아시아문학사를 쓸 것을 기대한다. 그럴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선행작업을 조금이라도 진척시키는 것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의 선행을 동아시아문명권뿐만 아니라 다른 문명권에서도 찾아 무엇이 잘못되어 어떻게 바로잡아야 마땅한지 살피는 것

이 도움이 되는 작업이기를 바란다.

II. 다른 문명권의 전례

동아시아문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문명권의 전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명권문학사 [다]를 쓰는 작업을 산스크리트문명권, 아랍어문명권, 라틴어문명권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켜 참고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가운데 유럽 라틴어문명권에서 이론 업적이 특히 주목할 만해서 집중해서 다루기로 한다.

산스크리트문명권의 경우에는 산스크리트문학사가 거듭 이루어졌으나 두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 인도 안팎의 산스크리트문학을 함께 포괄하지 못하고 앞의 것만 다룬다. 산스크리트문학과 여러 개별언어의 문학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지 못한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학까지 취급범위를 넓혀 문명권 전체의 문학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하지 못했다.

아랍어문명권에서는 고금의 아랍문학사를 일관되게 서술해서 공동문어문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구어문학이나 구비문학은 소홀하게 취급하고, 아랍문학이 각국문학으로 분화된 양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아랍어를 공동문어로 하면서 발전된 다른 여러 언어의 문학까지 포괄한 문명권문학사는 아직 없다.

라틴어문명권 문학사의 기존업적에도 그런 결함을 지닌 것이 적지 않다. 취급범위가 문명권 전체로 확대되지 못했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상관관계 해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동아시아문학사 서술을 위해 도움이 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고자 한다.

유럽문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세기에 출현했다. 이렐(Iraille)의 《호메로스에서 오늘날까지 문학논쟁의 역사》(*Histoire des querelles littéraires depuis Homère jusqu'à nos jours*, 1761)에서 고금의 유럽문학을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했다. 스타엘부인(Madame de Staël)은 문학의 변천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여러 나라의 경우를 들어 고찰하는 작업들사 《회제도와 관련시켜 고찰한 문학》(*De la littérature considérée dans ses rapports avec les institutions sociales*, 1800)에서 전개했다.

19세기로 넘어오자 유럽문학사 서술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프레드리히 슈레겔(Friedrich Schlegel)의 《신구문학사》(*Geschichte der alten und neuen Literatur*, 1815)에서 고대의 그리스문학에서 자기 시대까지의 유럽각국 문학을 통괄해서 이해하고자 했다. 원래 하나였던 문학이 18세기 동안의 전환을 거쳐 유럽문학이 여러으로 분화된 것이 당연한 발전과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독일문학이 출현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여겼다.

그 뒤에 유럽문학사라고 하는 책이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들 하나 들면 세귀르(Nicolas Ségur)의 《유럽문학사》(*Histoire de la littérature européenne*, 1948)이다. 그리스 사람이 프랑스에 머물면서 1928년부터 12년의 기간 동안 프랑스로 쓴 것이며 전5권이나 되는 분량이다. 고대그리스문학에서 시작해서 근대프랑스문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축으로 삼아 유럽문학사의 전개를 총괄해서 고찰했다.

제1권 첫 장 <그리스문학 입문>(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grecque)에서, 맨 마지막 제5권 끝 장 <프랑스가 근대의 사상과 예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연다>(La France ouvre des voies nouvelles à la pensée et à l'art moderne)에 이르기까지 유럽문학사는 여러 겹가지가 있어도 단일한 흐름을 이루어왔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 중간에서 중세문학을 다루면서 제2권 <중세의 라틴어>(Le latin au moyen âge)라는 장에서는 라틴어 덕분에 유럽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하면서 라틴어는 “완벽하고 보편적인 언어”라고 칭송하고, 로마와 교회에서 이중의 영광을 누린 “신성한 언어”라고 칭송했다.¹⁾

유럽문학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중심점이 거기 있다고 했다. 고대 그리스·로마문학을 연원으로 한 유럽문학이 중세시기에 동질성을 분명하게 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근대에 이르러 각국어문학으로 분화된 이질성 때문에 동질성의 오랜 전통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유럽문학사 단일 문학일 수 있는 이유

1) Paris: Victor Attinger, 1948, vol. 2, 63

가 거기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여러 문제를 한쪽 방향에 치우쳐 해결했다. 유럽문학의 최고원천은 고대그리스문학이고, 그것보다 앞서거나 그것과 대등한 다른 원천은 없다고 했다. 여러 갈래로 뻗은 문학사의 실상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단일화를 이룩했다.

헤브리아문학, 북유럽문학 등의 경쟁자를 논의에서 제외했다. 고대그리스문학은 로마문학을 거쳐 서유럽문학으로 계승되었다고 했다. 고대그리스문학이 비잔틴문학을 거쳐 동유럽으로 계승된 사실은 무시했다. 비잔틴문학을 직접 계승한 러시아문학은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서유럽문학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이후의 시기에 비로소 등장시켰다. 민족어문학이 다양하게 발달된 시기에도 유럽문학은 그 중심점인 프랑스문학에서 동질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내용의 프랑스중심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문학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지면을 줄여 서술했다.

그런 사황을 무리하게 처리하면서 유럽문명권문학의 동질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반론을 어디서라도 제기해야 할 것인데 영국에서 앞장서서 말아, 유럽문학사를 다시 쓰는 수많은 저술을 내놓았다. 《문학과 서양문명》(*Literature and Western Civilization*)이라는 이름의 총서는 특히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충실해서 반론의 무게가 대단함을 자랑한다. 고대그리스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유럽문학을 총괄해서 다루면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영국은 이질성의 소중한 예증이므로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시각을 다양성을 갖추어 설득력을 가중시킨 점을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학사를 문화사 전반이나 사상사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작업을 여러 필자가 각기 상이하게 전개해 유럽문학이란 어느 정도 다채로우며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납득할 수 있게 했다. 사실과 시각의 다양성에 압도당해 중세문학에 관해 이해한 바를 누구라도 쉽사리 일반화할 수 없게 했다.

유럽문학이 중세문학에서는 동질성을 보이다가, 근대문학에 이르러서는 이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기존의 관념을 불식했다. 《중세의 세계》에서²⁾

중세에도 유럽문학 내부에 상당한 이질성이 있었음을 납득할 수 있게 보여준 것이 그렇게 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중세의 라틴어문학의 전반적인 모습은 고대문명의 존속을 다룬 장에서³⁾ 간략하게 살핀 다음, 각국의 사정이 서로 다른 점을 밝혀 논하는 데 더욱 힘썼다. 영국은 라틴어문학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익혀야 하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했다. 여러 갈래의 로맨스어나 게르만어가 성장해 각국문학이 출현한 상황을 한층 자세하게 살핀 다음, 영어의 발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특별히 고찰했다.⁴⁾

유럽은 서유럽만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동유럽에도 관심을 가져 비잔틴문명이 러시아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하는 장을 하나 별도로 둔 것을⁵⁾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서유럽과 동유럽을 대동하게 다룬 것도, 그 양쪽을 포괄하는 전체 유럽에 관해서 말한 것도 아니다. 동유럽의 경우를 들어 서유럽의 단일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다. 동유럽의 러시아가 로마가 아닌 비잔틴을 계승했다고 해서, 서유럽의 영국이 로마와 상당한 거리를 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게 했다.

유럽문명에 관해 논의하면서 프랑스에서는 동질성을, 영국에서는 이질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은 두 나라가 놓여 있는 위치를 보아 당연하다. 프랑스는 중원의 중심국가이고, 영국은 변방의 주변국가이다.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화를 할 때 주변국가 영국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앞섰으므로 이질성을 강조하는 논법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질성에 근거를 둔 근대민족국가의 독자노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발전의 길임을 역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세 이해에

2) David Daiches, Anthony Thorlby ed., *Literature and Western Civilization: The Medieval World* (London: Aldus, 1974)

3) Pierre Riché, "The Survival of Culture"

4) J. Cremona, "The Romance Languages"; Gerhard Eis, "The Origins of German Languages and Literatures"; Richard N. Bailey, "The Development of English"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

5) D.S. Likhachev, "Byzantium and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Russian Literature"

서도 이질성이 동질성보다 더욱 낫다고 하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한 영국의 식민지 통치자들은 영국이 그 자체로 대단하다고 하지 않고 유럽문명 전체를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해서 위세를 높였다. 특히 인도에 파견된 관리들이 인도의 문화 전통 때문에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대그리스·로마문명의 우월성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영국은 아테네와 같고, 대영제국은 로마제국의 위업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도록 교육했다.⁶⁾ 그러나 유럽 안에서 유럽문명에 관해 논의할 때에는 영국 학자들은 그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중요시하고, 유럽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임을 강조해서 말했다.

그 뒤에 프랑스 쪽에서 《유럽문학사》를⁷⁾ 다시 내놓았는데, 유럽 전역에서 공동작업을 한 결과이다. 공동작업 편집책임자 2인, 전체 편집자 5인, 장별 편집자 19인이 주도 하고, 유럽 전지역 150개 대학이 협력해서 이룩했다고 밝혔다. 서두에 명단이 나와 있는 집필자의 수를 나라별로 들면, 독일 13, 불어권 벨기에 6, 네덜란드어권 벨기에 16, 덴마크-스칸디나비아 9, 스페인 13, 프랑스 20, 영국 17, 그리스 12, 아일랜드 3, 아이슬랜드 3, 이탈리아 16, 룩셈부르크 2, 네덜란드 6, 폴란드 5, 포르투갈 8, 러시아-소련 13, 스위스 3, 중부유럽 6, 발칸유럽 1, 발틱해 여러 나라 1이다.

그러나 많은 집필자가 널리 참여해 유럽 통합을 강화하는 신대의 요구에 만

이해는 없었다. 따라서 유럽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유럽문학사 편찬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은 이후 유럽 문학사 연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이 책은 이후 유럽 문학사 연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서구의 문학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 유럽문학사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각국 문학에서 널리 받아들인 많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설명을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보

6) 그린 '교육을 상실한 사령탑' 옥스포드대학의 제국주의 책동을 오늘날의 영국학자가 파헤쳐 본한 Richard Symonds, *Oxford and Empire: the Last Lost 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가 있어 흥미롭다.

7) D'annick Benoit-Dusauroy et Guy Fontaine dir., *Lettres européennes, histoire de la littérature européenne* (Paris: Hachette, 1992).

여주었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되는 작가들은 별도의 항목을 두고 자세하게 다루었다. 서술의 시각이나 방법은 필자에 따라 다르다. 갈래개념이나 문예사조에 관한 논의는 되도록 가볍게 처리하고, 권말에 작가 이름 색인만 두었다.

거의 모든 나라 학자들이 참여해 이처럼 큰 규모의 공동작업을 한 것은 유럽이 하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쾌사이다. 다른 문명권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해 부러움을 자아낸다. 그러나 문학사 서술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오랜 논란을 새롭게 해결한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절충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관계, 유럽문학과 다른 문명권문학의 관계에 관한 논란을 새롭게 해결하려는 의욕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네가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유럽 밖의 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유유럽문학이 곧 세계문학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 대신에 세계문학에 널리 타당한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III. 동아시아문학사의 기존 작업

동아시아문학사라는 책은 아직 없다. 동아시아가 하나라고 생각되던 시대에는 문학사 서술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동일한 공동문어인 한문을 가지고 같은 격식의 작품을 쓰면서 그 성과를 보여주는 작품 선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중국에서 《全唐詩》·《全唐文》부터 《明詩綜》·《清詩匯》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시문집을 편찬하면서 동아시아 다른 나라 작품도 더러 수록한 것은 중국문학의 일부라고 여겼기 때문이며 독자적인 의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한국인 柳得恭이 중국·일본·안남·유구 시인들의 시를 수집해놓은 것은 대등한 관점에서 상호이해를 하기 위해 한 일이지만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⁸⁾ 동아시아문학 작품집을 제대로 만든 것은 오늘날까지 어느 나라에도

8)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266

없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고찰을 시도한 작업은 동아시아 밖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알베르트 콜프(Albert Kolb)는 지리학의 관점에서 중국·일본·한국·월남의 공통점을 찾았다.⁹⁾ 미국의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는 동아시아 역사를 총괄해서 파악하는 일련의 작업을 했다.¹⁰⁾ 프랑스의 레옹 방데르메르슈(Léon Vandermeersch)는 동아시아 전통문화가 오늘날의 경제발전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지 살폈다.¹¹⁾

그런 업적은 자료 이해 능력과 관점 양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중국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일면의 특징을 확대해서 동아시아 전역을 파악하려고 한다. 동아시아 학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자국 또는 자국 외의 다른 어느 한 나라의 역사나 문화 가운데 어느 것을 전공하는 한정된 안목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근래 일본에서 동경대학 일본사 교수진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속의 일본사》라는¹²⁾ 이름의 총서를 마련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거기서 일본이 동아시아문명의 일원임을 명시하고, 일본사를 동아시아 다른 나라의 역사와 비교해서 이해하면서, 일본사에서 동아시아사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사의 독자성을 밝혀 일본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일본의 국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오랜 습성을 과감하게 청산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사 위주의 역사 이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동아시아가 하나이면서 여럿인 원리를 적극

9) Albert Kolb, C. A. M. Sym, tr., *East Asia, China Japan Korea Vietnam* (London: Methuen, 1971)

10) Edwin Reishauer and John K.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Mifflin, 1960);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68)

11) Léon Vandermeersch, *Le nouveau monde sinisé* (Paris: Pres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6)

12)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3)

탐구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나 성과가 없다.

동아시아문명의 동질성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문학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동아시아문학사라는 책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의 선행업적을 찾는다면 동독에서 나온 《동아시아문학들》이¹³⁾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중국·일본·한국·월남·몽골의 문학사를 각기 써서 한 자리에 모은 것이며, 상호관련은 다루지 못했다.

중국에는 《東方文學史》라는 책이 몇 가지 있으나, 동아시아문학사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문학을 다루었다. ‘西方’이라고 일컬은 유럽문명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를 모두 ‘東方’이라고 일컫고, 한문문명권, 산스크리트문명권, 아랍어문명권, 그리고 그런 문명권 밖의 여러 민족을 모두 포함시켰다. 세계를 ‘동방’과 ‘서방’으로 양분하고, 세계문학사를 둘로 나누어 쓰는 방법을 택했다. 동방문학은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잡아, 공통점이 뚜렷하지 않고, 문학사의 전개를 함께 논할 근거가 모호하다.

陶德臻 主編의 《東方文學簡史》를 보자.¹⁴⁾ 시대구분과 취급범위가 다음과 같다. +표시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이다.

	이집트	바빌론	인도	헤브라이	일본	조선	아랍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고대	+	+	+	+					
중고			+		+	+	+		
근대			+		+				
현대			+		+	+		+	
당대			+		+	+		+	+

시대구분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고서, 각 시대의 개별문학을 개관하고 대표작을 하나씩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른 내용을 검토해보면 허술한 점이 쉽사리 발견된다.

13) Leitung von Jürgen Berndt et al., *Ostasiatische Literaturen* (Leipzig: VEB, 1987)

14) 北京: 北京出版社, 1985, 修訂本 1990

인도네시아만 있고, 동남아시아 다른 곳은 취급하지 않았다. 월남문학, 타이 문학, 버마문학 등을 위한 자리가 없다. 인도네시아문학에 당대문학만 있다고 한 것도 잘못이다. 말레이어문학만 해도 중고문학부터 있고, 자바어문학까지 고려하면 그 연원이 훨씬 오래 된다. 이집트와 바빌론의 문학은 고대로 끝났지만 헤브라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헤브라이문학을 일단 등장시켰으면 중고 이후의 것도 다루어야 마땅하다.

아랍문학은 현대와 당대의 것이 없고, 아프리카문학에는 중고문학도 근대문학도 없다고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근대문학은 일본과 인도 것뿐이라고 하다가 수정판에서 아랍문학을 포함시켰다. 아랍문학이 오늘날 제3세계문학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했다. 아프리카문학 가운데 에티오피아문학은 연원이 아주 오래되고, 스와힐리어문학이나 하우사어문학에도 자랑할 만한 고전이 있다.

위의 책에는 편자가 아닌 季羨林的 서문이 있다. 季羨林은 자기가 主編을 한 《簡明東方文學史》를 별도로 내놓으면서¹⁵⁾ 더 긴 서론을 써서 동방문학사의 성립 근거를 논했다. 동방은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체가 뚜렷해 동방문학사 서술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지리적으로는 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동방이라고 했다. 그것이 한 지역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곳이 동방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의 동방이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의 제국주의의 침략을 가지고 고금의 문학사를 일관되게 취급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기 못하다.

내용을 보면, 시대구분을 고대·중고기·근현대로 단순화하고, 다른 지역도 위의 책보다 축소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문학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수정·증보판 季羨林 主編, 劉安武 第一副主編, 《簡明東方文學史》에서는¹⁶⁾ 그런 결함을 시정하려고 했다. 시대를 상고, 중고, 근고, 현·당대의 넷으로 나누고, 빠진 곳이 없도록 애썼다.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 미얀마나 라오스의 문학까지 등장시켰다. 아프리카문학도 세분화해서 다루고자 했다. 국가를 이루지

15)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7

16)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95

못하고 있는 민족의 문학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각국 문학 전공자들이 중국에 널리 갖추어져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의의보다 현재의 위치를 고려해서 우선순위와 취급비중을 결정했다. 언제나 일본문학을 한국문학보다 앞세운 것이 그 때문이다. 더 큰 결함은 일관된 원리나 방법이 없고, 개별적인 사례를 각기 그것대로 소개하는 데 그친 것이다. 기본설계는 대강 해놓고 세부를 충실하게 하는 데 힘썼다.

그 뒤에 다시 나온 王向遠의 《東方文學史通論》은¹⁷⁾ 다소 진전된 내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차례를 들고 살펴보자. 띄어쓰기를 해서 옮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에만 원어를 적는다.

신앙적 문학시대

동방신화

동방史詩

귀족화적 문학시대

동방고전시가

동방고전산문 與 戲劇문학

세속화적 문학시대

동방민간문학

동방시정문학

근대화적 문학시대

동방문학 근대화적 四種 기본양식

대문호적 창작 與 근대문학적 심화

근대문학적 분화 與 종결

世界性的 문학시대

현대주의적 발전 與 현실주의적 변영

在 전통 與 현대, 동방 與 서방적 融合中走向 세계

시대구분을 새롭게 하려는 의욕이 보인다. 그러나 용어와 개념이 적절하지 못하다. “신앙”·“귀족화”·“세속화”·“근대화”·“세계성”은 각 시대의 특징

17)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4

가운데 어느 것을 임의로 적출해서 명명했으므로 일관성이 없다. 시대구분 문제에 대해 깊은 연구 없이 기발한 용어를 내세우는 데 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시대의 특징이 “신앙”이라면, 그 다음은 “정치”, 그 다음은 “경제”의 시대라고 해야 짝이 맞는다. 둘째 시대가 “귀족”의 시대라고 하면, 그 앞은 “주술사”, 그 뒤는 “시민”의 시대라고 해야 한다. 넷째 시대를 “근대화”의 시대라고 하면, 그보다 먼저 “고대화”·“중세화”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시대가 “세계성” 문학의 시대라고 하려고 하면 “지역”·“문명권”·“민족국가” 문학의 시대가 먼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은 모두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등장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느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특징으로 해야 일관성이 있으면서 다면적인 의의가 있는 시대구분을 할 수 있다.

공통된 갈래개념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 항목에서 지역이나 국가에 관한 서술을 한 것도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동방신화”, “동방史詩”, “동방고전시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방”이라는 말을 앞세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서방신화”는 신화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주므로 “신화”라고 해도 그만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동방의 유산은 “동방”이라는 말을 붙여 “동방신화”라고 일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 문명권에 지나지 않는 “서방문학”은 보편적인 의의가 있고, 여러 문명권으로 이루어진 “동방문학”은 특수성을 보여줄 따름이라고 하는 편견을 그대로 두고 동방문학사를 쓰는 것은 무리이다.

시대 명칭과 서술 내용의 불일치가 또한 문제이다. “귀족화적 문학시대”가 앞뒤 시대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공동문어문학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데 있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동문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고, 공동문어문학의 형성과 분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 시기 “동방고전시가”를 다룬 항목이 다음과 같다. 용어를 번역해 옮긴다.

히브리시가

인도고전시가
아랍고전시가
페르시아고전시가
일본고전시가

“히브리시가”는 기독교 경전에 들어 있는 것들을 말하니 앞 시기 “신앙적 문학시대”로 옮겨야 마땅하다. “인도고전시가”는 “산스크리트고전시가”라고 고쳐 일컫고, 인도 이외 다른 곳 예컨대 크메르(캄보디아)의 것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아랍고전시가”와 “페르시아고전시가”를 병치한 것은 잘못이다. 페르시아 시인이 공동문어 아랍어로 쓴 시는 어디에 속한단 말인가? “아랍고전시가”를 논하면서 공동문어시와 민족어시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본고전시가”라는 항목은 이중으로 잘못되었다. 일본만 있고 동아시아 다른 곳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시는 빼고 일본어시만 취급했다. “동아시아고전시가”라 하고 한국, 일본, 월남, 南詔, 유구 등지의 한시를 두루 거론하고 한시와 민족어시의 관계를 논해야 한다. 산스크리트문명권·아랍어문명권·한문문명권의 경우를 함께 다루는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공동문어시와 민족어시의 관계를 각기 고찰해야 한다.

“동방문학 근대화적 四種 기본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일본: 系統引進-改造變形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對抗排斥-選擇吸收
아랍: 輸入借鑑-創新復興
검은 아프리카: 衝突瓦解-覺醒探索

근대문학 형성과정이 서로 달라 네 가지 기본양식을 보여주었다고 한 것은 의욕에 찬 시도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갑)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곳이 일본만은 아니다. 주권을 유지하고 자기 전통을 존중하면서 개조하고 변혁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할 곳에 타이·페르시아·터키·에티오피아도 있다. (을) 남아시아·동남아시아·아랍의 저항문학은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

동질성이 있어 양분하기 어렵다. (병) 사하라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에서는 민족어문학의 발달이 늦어 유럽의 언어를 차용해 반제국주의문학을 일으켰다. 민족어문학이나 유럽어문학이나 하는 것이 유형구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세계문학사의 전개》에서는 (갑)·(을)·(병)의 경우를 갈라 논하면서 특성을 비교했다.

동방문학사를 따로 쓰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문학사를 유럽문명권 위주로 쓰기 때문에 소외된 영역의 문학을 돌본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유럽문명권의 문학은 빼놓고 그밖의 다른 여러 문명권의 문학은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다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유럽문명권중심주의의 잘못은 세계문학사 전체를 다시 써서 바로잡아야 한다. 세계를 서방과 동방으로 양분하는 관습은 용어상 마땅하지 않고 서방의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한다. 서방문학의 보편성은 그대로 두고 동방문학의 특수성을 옹호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청산해야 할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그런데도 동방문학사를 계속 쓰고 필수적인 교재로 삼는 것은 학문 외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동방문학사는 서방과 동방을 분리시켜, 중국이 동방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의 구현물이다. 문학사 서술의 이론이나 방법에 대한 심각한 검토는 하지 않은 채,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을 제공하는 구실이나 한다. 대중교육은 크게 중요시하면서 학문연구는 소홀하게 하는 풍조가 문제이다. 마르크스주의 문학사관이 지닌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이론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동방의 중심이라고 하는 새 시대의 대국주의를 고취하려고 하니 근본적인 파탄이 생기고 있다.

동방문학사에 중국문학사는 빠져 있다. 문학사를 중국문학사·동방문학사·서방문학사로 나누어 가르치는 교과과정상의 구분 때문에 중국문학사는 동방문학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삼는다. 중국문학은 논외로 하고 동방문학사를 서술하니 문학사의 전개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열거에 그친다. 동방문학사에서 동아시아문학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려내보면 일본에 관해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어찌다가 들어간 파편에 지나지 않는다. 동아시아문학의 판도를 그릇되게 그려놓고 동방문학을 모두 이해하겠

다는 것은 무리이다.

최근에 동아시아문학사를 쓰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일본비교문학회에서 발의하고 한국과 중국의 비교문학회의 동조를 얻어 세 나라 학자들이 함께 쓰는 동아시아문학사를 내놓겠다고 한다. 그런데 서양문학을 전공하고 비교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어 근대 이전 문학을 상식 수준에서 처리할 염려가 있다. 한문학의 공통된 전개는 무시하고 각국어문학의 독자적인 전개만 드러내 보일 것 같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서술을 세 나라에서 각기 한다고 하니 균형을 취하기는 하지만 열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문학사의 전개와 개별문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해 기둥이 없는 집을 짓는다. 고찰의 단위를 세 나라로 한정하고 월남, 유구, 그리고 중국 안의 여러 민족의 문학은 무시해 기득권자의 횡포를 자행한다. 국가가 없는 민족은 문학도 없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고 말 수 있다.

IV. 새로운 방안 제시

동아시아문학사는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관계사이다. 중심부에서 이룩한 공동문어문학을 중간부나 주변부에서 받아들여 재창조하면서 민족어문학이 기록문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극으로 삼고, 민족어기록문학의 성장이 다시 공동문어문학의 성격을 변모시킨 과정이다. 중세에 이루어진 다른 여러 문명권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밝혀 논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진행한 작업이 적지 않아 되풀이해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간추릴 수 있다. 제3차 東亞比較文化國際學術會議가 1998년 10월 10일 중국의 北京大學에서 열렸을 때 기조발표를 한 논문 <東亞文化史上‘華·夷’與‘詩·歌’之相關>이 그런 것이다.¹⁸⁾ 한문을 동아시아 학문의 공용어로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앞에다 내놓

18) 《비교문학》 23 (한국비교문학회, 1999)에 발표하고,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

고 한문으로 썼다. 긴요한 대목을 국문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논의를 보태기로 한다.

동아시아에서 천여년 동안 사용해온 두 개의 상대어 ‘華’와 ‘夷’, ‘詩’와 ‘歌’는 문학사의 전개를 꿰뚫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華’는 동아시아문명이 함께 지닌 보편적 이상이다. ‘夷’는 민족문화가 각기 다른 특성이다. ‘詩’는 공동문어를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울문이다. ‘歌’는 각기 민족어를 사용하는 상이한 울문이다. 세부적인 논란은 많이 엇갈렸지만, ‘華’·‘夷’·‘詩’·‘歌’의 기본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는 데서는 견해차가 없었다.

‘華’·‘夷’가 ‘詩’·‘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피는 것이 동아시아문학사 이해의 핵심과제이다. 중세보편주의와 민족문화의 관계를 통해 문학의 지향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공동문어시와 민족어시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시의 변천은 산문보다 훨씬 선명하다. 중세문학사의 전개를 먼저 이해하고, 중세문학과 비교를 통해 그 앞의 고대문학이나 그 뒤의 근대문학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詩’는 ‘華’의 소산이고, ‘歌’는 ‘夷’의 발현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華’·‘夷’와 ‘詩’·‘歌’의 상호관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歌’로 ‘華’를 구현하는 것도 있고, ‘詩’를 지어 ‘夷’를 선양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華詩’·‘夷歌’·‘華歌’·‘夷詩’가 모두 존재했다. 이 넷의 상관관계가 ‘華詩’와 ‘夷歌’, ‘華詩’와 ‘華歌’, ‘華詩’와 ‘夷詩’, ‘夷歌’와 ‘華歌’, ‘夷歌’와 ‘夷詩’, ‘華歌’와 ‘夷詩’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歌’만 있고, ‘詩’는 없었다. 문자를 사용하면서 ‘詩’가 이루어졌다. ‘歌’를 모으고 가다듬은 《詩經》을 엮어 ‘詩’의 연원을 마련한 孔子가 또한 《春秋》를 지어 ‘華’와 ‘夷’를 구별했다. 그래서 ‘詩’는 우아하고, ‘歌’는 속되고, ‘華’는 존귀하고, ‘夷’는 야비하다는 구분이 생겼다. 그런 가치체계가 동아시아 보편종교 유교의 핵심 교리로 채택되어 중세문명의 규범 노릇을 하고, 문학사의 전개를 지배했다.

《시경》에 실려 있는 작품은 ‘歌’이다. 일반 백성이 부른 민요에서 유래한 것

성》 말미에 수록했다.

들이 많아 본래 ‘夷歌’이다. 그런데 공자의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儒家는 그런 것들을 ‘華詩’의 연원으로 삼았다. 漢에서 魏晉에 이르는 시기에 ‘華詩’라고 할 것을 이룩하고 ‘夷歌’를 폄하했다. 이따금 ‘夷歌’를 채록해 ‘樂府’에 편입시키면서 ‘夷’의 취향은 제거하고 ‘華’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썼다.

그 다음 시기 李白의 <娥眉山月歌>는 ‘歌’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채로 脫俗하고 高雅한 기풍을 갖추어 ‘華詩’의 한 전범으로 평가된다. 전문을 들고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娥眉山月半輪秋	아미산의 달이 반만 둥글어진 가을,
影入平羌江水流	그 그림자 비친 평강강 물결 흘러가네.
夜發清溪向三峽	밤에 청계역 출발해서 삼협을 향하느라고,
思君不見下渝州	그리운 그대 보지 못하고 유주로 내려가네.

이런 작품이 이루어진 唐代에 ‘華詩’가 확립되어, 李白과 杜甫는 영원한 스승으로 숭앙되고, 五言과 七言의 律詩 형식이 불변의 音律로 정립되었다. 그 뒤에는 민요를 받아들이는 ‘樂府’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夷歌’를 아주 무시했다. ‘華詩’가 ‘夷歌’와 교섭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국문학사의 특징이다.

‘樂府’에 채록되지 않은 ‘夷歌’는 버려, 중국은 ‘華詩’만 있는 나라인 것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국 중심부 漢族의 여러 분파는 서로 통하지 않는 말을 사용하면서 상이한 ‘夷歌’를 전승해왔다. 그 가운데 일부가 최근에야 채록되어 출간되었다. 양자강변의 吳語서 사시 <沈七哥>, <薛六郎> 등이 그런 예이다.¹⁹⁾

그러나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은 언제나 자기의 ‘夷歌’를 소중하게 여겼다. 白族의 <創世歌>, 納西族의 <黑白之戰>, 彝族의 <銅鼓王> 같은 거편의 ‘夷歌’로 민족의 자긍심을 표출했다. <後漢書> <西南夷列傳>에 수록되어 있는 白狼王의 <遠夷樂德歌> 등의 慕漢歌 세 수는 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서남 쪽 소수민족은 이따금 ‘華詩’ 창작에 동참하면서 중원을 그리워하는 사연을 나

19) 姜彬 主編, 《江南十大民間敘事詩》(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9)에 수록되어 있다.

타내지 않고, 자기네가 이룩한 문화수준을 보여주었다.

段義宗은 南詔國 白族 시인이다. 《全唐詩》에서 “外夷”라고 밝히고 <思鄉作>을 수록했다.²⁰⁾ 그 시의 사연이 다음과 같다.

座久銷銀燭	오래 앉아 은빛 초만 녹이면서,
愁多減玉顏	근심이 많아 고운 얼굴 쇠약해질 때,
懸心秋夜月	마음을 매달고 있는 가을밤 달
萬里照關山	만리 관산을 비춘다.

적막한 가을밤에 타향 關山의 달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시인의 마음 처절하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피살되었다. 오늘날 이 시를 평가해 “頗具唐詩風韻”(자못 당시의 풍모와 운율이 있다)고 하는데,²¹⁾ 이른바 “唐詩風韻”은 중국 것만 아니고, 중세전기 이래로 동아시아 각국의 ‘華詩’가 공유한 특징이다.

신라시대 한국인 崔致遠이 당나라에 있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한 시 <陳情上太尉>에서 “海內誰憐海外人, 問津何處是通津”(해내 사람이 누가 해외인을 가련하게 여기랴, 묻노라 어느 곳이 길이 열리는 나루인가)하고, “客路離愁江上雨, 故園歸夢日邊春”(나그네 길 이별의 슬픔 강 위의 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은 해 가의 봄이다)고 했다. 그 언사와 음률이 빼어난 ‘華詩’이게 하고, 회포나 취향에서는 고국의 하늘을 찾았다.

고려시대 한국 시인 李齊賢이 元나라에 머물면서 지은 <思歸>는 전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扁舟漂泊若爲情	조각배로 떠돌아다니니 어찌 정이 들겠나.
四海誰云盡弟兄	사해가 형제라고 누가 일렀던가.
一聽征鴻思遠信	기러기 소리 한 번 들어도 먼 곳 소식 생각나고,
每看歸鳥嘆勞生	돌아가는 새를 보고 수고로운 삶을 탄식한다.

20) 《全唐詩》第11函 第9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953

21) 鮮于樞 選注, 《中國歷代少數民族漢文詩選》(北京: 民族出版社, 1988), 18.

窮秋雨鏤青神樹
落日雲橫白帝城
認得蓴羹勝洋酪
行藏不用問君平

궁상맞은 가을비 청신 숲에 가득하고,
해질녘의 구름은 백제성을 가로질렀다.
순채국이 양락보다 나은 줄 꺾어보고 알았으니,
나아가고 물러날 바 군평에게 물을 것 없다.

시인은 天下同文의 넓은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사해를 형제로 여기는 명사들과 교류했다. 곳곳에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좋은 음식 먹었으며, 보는 것마다 묘한 흥취 느껴 시로 읊었다. 한가로운 사람이 소일거리를 찾은 것은 아니다. 조국을 위해 애쓰느라고 그렇게 했다. 필수 과업 완수하지 못하고서 고향을 생각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앞서니 시인이라서 그런가. 수고로운 삶을 고향에 돌아가서 쉬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순채국을 즐기겠다고 이미 작정했으니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먼 나라 일본의 시인 또한 중국을 방문하고 그 비슷한 시를 지었다. 명나라 초기에 絶海中津은 귀국이 가까워왔을 때 <四明館驛簡龍河猷仲徽>를 지어 만단의 감회를 중국인 벗에게 전했다. 그 한 대목에서 “十年寄跡江淮上, 此日還鄉雨露餘”(십년 동안 강가에서 자취를 깃들이다가, 오늘 돌아가려고 하니 우로 같은 은혜 남았다)고 하고, “客路扁舟回首處, 離愁滿幅故人書.”(나그네 길조각배 타고 멀리 돌아보는 곳으로 벗이 보낸 편지 이별의 슬픔 가득하구나)라고 했다.²²⁾ 청신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연이다.

외국시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지은 회고시에 비감에 사로잡힌 것이 이따금 있는데, 표리가 다른 의미를 지니기 일쑤이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다고 하고서 자국이 겪는 불행을 토로한다. 琉球 시인 周新命은 淸나라 때 중국에 갔다가 어느 지방 제후 궁성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탄식한 <釣龍臺懷古>를 지었다. 그 전문이 다음과 같다.²³⁾

江上荒臺落日邊
不知龍去自何年

강 가 황량한 누대에서 해가 지는데,
알지 못해라, 용은 어느 해에 가버렸는가.

22) 入矢高義 交注, 《五山文學集》(東京: 岩波書店, 1990), 83-84

23) 島尻勝太郎 選, 上里賢一 注譯, 《琉球漢詩選》(那覇: ひるぎ社, 1990), 144-145

殿檐花滿眠鼯鼠
輦道苔深哭杜鵑
遺事有時談野老
斷碑無主臥寒煙
淒然四望春風路
縱是鶯聲亦可憐

전각 처마에는 꽃이 만발해 다람쥐가 잠들고,
연이 지나던 길에 이끼가 짙어 두견이 운다.
시골 노인네나 이따금 지난 일 이야기하고,
잘린 비석 주인 없어 차가운 안개 속에 누웠네.
사방 봄바람 부는 곳 처연한 느낌으로 바라보니,
들려오는 피꼬리 소리 또한 가련하구나.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유구가 국권을 상실한 불운을 생각해낼 수 있다. 시인은 눈으로 타국의 정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자국의 역사를 생각한다. 곳곳에 펼쳐져 있는 정경을 볼 때마다 슬픈 노래가 꿈틀거린다. “斷碑無主臥寒煙”의 “斷碑”는 國史가 절단된 참상이다. “遺事有時談野老”의 “野老”는 國魂을 잊지 않고 있는 志士이다.

월남 시인 阮攸 또한 청나라 때 중국을 방문하고, 屈原을 조상하는 시 <反招魂>을 지었다.²⁴⁾ 그 서두에서 “魂兮魂兮胡不歸, 西南北無所依”(혼이여 혼이여, 어째서 돌아오지 않는가, 동서남북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면서)라고 한 것은 범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君不見湖南數百州, 只有瘦瘠無充肥”(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호남 수백 고을에 수척한 이들뿐이고 살찐 사람은 없는 것들)이라고 한 데 이르면 당대의 폐풍을 비판하고자 한 작자의 진의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한국에서 徐居正은 일찍이 《東文選》을 편찬해 역대 한국의 한시문을 수록하면서 서문에서 “我東方之文, 非宋元之文, 亦非漢唐之文, 乃我國之文也. 宜與歷代之文, 并行於天地之間”(우리 동방의 문은 宋元의 문도 아니고, 漢唐의 문도 아닌, 우리나라의 문이니, 마땅히 역대의 문과 함께 천지 사이에서 나란히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다른 나라에도 해당한다. 한국, 일본, 남조, 월남, 유구 등의 시인이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작시 능력을 지녀 동아시아가 한 집안일 수 있게 했다.

그 여러 나라는 중국처럼 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詩’와 ‘歌’를 병행시켰다. ‘詩’가 부족하다고 염려되면 ‘歌’에 더욱 힘써서 단점을 보충하고 장점을 살렸

24) *Tho Chu Han Nguyen Du* (Hanoi: Nha Xuat Ban Van Hoc, 1965), 526

다. 그렇게 해서 문학사를 ‘詩’와 ‘歌’의 교섭사로 전개한 것이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

중국 이외 동아시아 각국은 자기 민족의 ‘歌’를 선양하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을 강구했다. 문자를 사용하고, 율격을 정비하고, 시상의 격조를 높였다.

문자를 사용해서 口頭 ‘歌’인 민요가 書面 ‘歌’인 작품이 되게 했다. 처음에는 자기 문자가 없어 한자를 차용해 민족어를 표기했다. 한국의 鄉札, 일본의 假名, 월남의 字喃, 白族의 白文이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는 鄉札로 鄉歌, 일본에서는 假名으로 和歌, 월남에서는 字喃으로 國音詩, 백족은 白文으로 白文詩를 창작했다. 후대에 日本은 假名을 단순화하고, 한국은 자국 문자를 창제해 새로운 ‘歌’인 時調를 표기했다.

율격을 정비해 ‘歌’가 ‘詩’에서 볼 수 있는 형식미를 갖추고자 했다. 월남에서는 민요의 율격과는 이질적인 五言이나 七言의 형식을 사용해 國音詩가 한시의 律詩와 같아지게 했다. 일본의 和歌나 백족의 白文詩는 五言과 七言을 교체시켜 율시와 가까워진 점이 같으면서 그 연원은 서로 다르다. 그것이 和歌에서는 민요와는 이질적인 인위적인 율격이고, 白文詩에서는 민요에서 가져온 자연적인 율격이다. 한국의 향가와 시조는 민요의 율격을 재조직했다.

시상의 격조를 높여야 ‘歌’가 ‘詩’와 대등할 수 있는 더욱 긴요한 요건을 갖추 수 있었다. ‘歌’에서 인생을 문제 삼고 산수를 완상하는 발상의 수준이 중국 및 자국의 ‘詩’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려 ‘夷’를 ‘華’로 바꾸어놓아야 그럴 수 있었다. 그런데 율격 정비와 시상 격상은 한꺼번에 이루지 못했다. 그 가운데 어느 한쪽에 더욱 힘써야 하는 사정이 언어의 특성 때문에 생겼다.

월남과 백족은 고립·단음절어인 언어를 사용하는 점이 중국과 같아서, 五言이나 七言으로 복합적인 구상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착·다음절어여서 ‘詩’와 같은 율격을 사용하면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많이 모자란다. 내용이 ‘詩’와 대등하게 하려면 음절수가 많아지는 독자적 율격을 사용해야 한다. 일본의 和歌는 율격의 정비를, 한국의 향가나 시조는 시상 격상을 택한 점이 서로 다르다.

이상에서 든 여러 방법을 사용해 각국의 ‘夷歌’ 가운데 일부는 ‘華歌’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월남의 國音詩나 백족의 白文詩는 그 명칭에 ‘詩’라

는 글자를 넣어 ‘詩’와 동격임을 표방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華歌’를 수준 높게 이룩한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나 ‘華歌’가 ‘華詩’와 같은 위치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문학의 층위가 둘에서 셋으로 바뀌었다. 상층의 ‘華詩’, 중층의 ‘華歌’, 하층의 ‘夷歌’가 삼층을 이루었다. 상층은 문인, 하층은 백성의 영역이었다. 중층은 양쪽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지만, ‘華’가 ‘華歌’의 가치라고 여기기는 동안은 문인이 관장했다.

문인은 ‘華詩’에 전념하기도 하고 ‘華詩’와 ‘華歌’를 함께 짓기도 했다. 그 둘 사이에 학식이나 지체상의 차이는 없었다. 당대의 최고 명현이고 석학인 백족의 楊敝, 월남의 阮廌, 한국의 李滉이 ‘華詩’로 동일한 문명을 선양하고, ‘華歌’를 지어 민족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함께 했다. ‘華歌’를 확립한 15·16세기가 중세후기문학의 성숙기이다.

楊敝의 白文詩 <山花碑>는 ‘華歌’의 좋은 본보기이다. 전문 20절 가운데 13·14 두 절을 들면 다음과 같다. 원문을 들고 번역한다. 白文을 직접 이해하지 못해 중국어 번역을 참조해 번역했다.²⁵⁾

盛國家覆世功名	국가 번성하게 해 세상 덮을 공명 이루고,
食朝廷尊貴爵祿	조정에서 존귀한 작록 누리며,
慈悲治理衆人民	자비로 못 인민 다스려,
才周文武	그 나라 주나라 문왕·무왕과 견주리라.

恭承敬堂母天地	부모와 천지를 각별하게 존중하고,
孝養干子孫釋儒	자손 기르면서 불교·유교를 가르친다.
念禮不絕鐘磬聲	종과 경 울리며 예불 소리 그치지 않아,
消災難長福	재난을 없애고 복을 길게 하노라.

성리학의 대가인 李滉은 ‘華歌’의 본보기가 되는 <陶山十二曲>을 짓고, 그 발문에서 ‘歌’의 감화가 ‘詩’보다 앞서는 이유를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스스로 노래 부르고 또한 춤을 추면, 비루한 마음을 거의

25) 龔友德, 《白族哲學思想史》(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92), 363-364

다 씻으면서 감발하고 융통하게 된다)고 했다. 읊기만 하는 데 그치는 ‘詩’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 설득의 방법을 삼지만, 노래하고 춤추는 ‘歌’는 온몸을 움직이게 해서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깨끗해지는 도덕적 정화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華’의 기풍을 진작하는 데 ‘歌’가 소중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華歌’를 평가하는 이론의 근거로 삼았다.

그 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18세기 무렵에 ‘詩’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漢·魏晉 시대애나 있다가 잠적한 지 천여 년이나 지난 ‘樂府’를 중국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대거 창작했다. 명칭은 같아도 실물은 달라, 그런 것들은 ‘夷詩’라고 일컬어 마땅하다. ‘夷歌’를 ‘詩’로 읊기면서 민족문화의 특성을 적극 구현하고, 현실인식을 강화하면서 ‘華詩’의 주도권에 도전했다.

그 작업은 이론적 근거를 단단하게 갖추고 진행되었다. 한국의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閭巷間，樵童汲婦，嘒啞而相和者，雖曰鄙俚，若論眞贋，固不可與學士大夫之所謂詩賦者，同日而論。”(시골 마을에서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길는 아낙네가 ‘이야’ 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소리는 비천하다고 하지만, 진실과 허위를 가린다면 학사·대부의 이론마 시니 부니 하는 것과 같이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夷歌’가 ‘華詩’보다 더욱 소중하다고 했다. 朴趾源은 <嬰處稿序>에서 “字其方言，韻其民謠，自然成章，眞機發現.”(방언을 글로 적고, 민요에 운을 달면 저절로 문장이 되고, 진실이 발현된다)고 하면서 ‘夷歌’인 민요가 문학창작의 바탕이 된다고 했다.

‘樂府’라고 표방한 ‘夷詩’는 ‘翻譯樂府’·‘詠史樂府’·‘紀俗樂府’·‘戲作樂府’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쪽을 많이 창작했는가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 ‘翻譯樂府’에 장기를 보여, 申緯의 시조 번역, 柳振漢의 한역 <春香歌> 같은 것들을 이룩했다. ‘詠史樂府’는 한·일 양쪽에 다 많아, 沈光世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海東樂府>, 賴山陽의 <日本樂府>가 널리 알려져 있다.

‘紀俗樂府’는 가장 널리 분포되어 어느 곳에서도 힘써 창작했다. 그 본보기로 월남 시인 阮攸의 장시 <龍城琴者歌>를 살펴보자. 하층민인 한 악공의 행색을 세밀하게 그리면서 월남 역사의 큰 사건인 西山運動이 퇴폐한 비운을 탄식한 내용이다. 한 대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²⁶⁾

顏瘠神枯形略小
 狼藉殘眉不飾粧
 誰知就是當時城中第一妙
 舊曲聲聲暗淚垂
 耳中靜聽心中悲
 猛然憶起二十年前事
 鑑湖席中曾見之
 城郭推移人事改
 幾處桑田變滄海
 西山基業盡消亡
 歌舞空遺一人在
 瞬息百年能幾時
 傷心往事淚沾衣

안색 수척하고 정신 메마르며 모습 왜소해지고,
 눈썹이 많이 자라 분장을 감당하지 못하네.
 누가 알리 이 사람이 당시 성중에서 으뜸이었음을.
 옛 노래 가락가락 몰래 눈물 흘리게 해서,
 귀로 조용히 듣노라니 마음속 슬프구나.
 이십년 전의 기억이 드세게 일어나는구나.
 감호점의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보았는데,
 성곽이 바뀌고 사람의 일도 달라져,
 몇 곳의 상전이 창해로 변했는가.
 서산의 기업은 다 없어져 망하고,
 가무만 공연히 한 사람에게 남아 있다.
 순식간이 백년이니 얼마나 살겠나.
 지난 일 상심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서산운동이라고 하는 혁명이 성사되어 새 왕조를 일으킨 주역들의 모임에서 큰 기량을 발휘해 칭찬받던 악공이 이십 년이 지난 뒤에도 공연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이중의 탄식을 했다. 악공의 행색이 초라해졌다고 한 것은 표면상의 주제이다. 역사를 바꾸어놓고자 하는 거사가 실패해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紀俗樂府’를 지어 ‘詠史樂府’ 노릇도 하게 했다.

‘戲作樂府’는 ‘狂詩’라고 일컬어지면서 일본에서 크게 성행했다. 높이 평가되는 고전을 모방하면서 뒤집어엮어 천박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든 것이 그런 작품이다. 한 예로 桂井蒼八이 개작한 <娥眉山月歌>를 들어보면, 娥眉山을 임산부의 배로 만들었다. 李白 원작의 고귀하고 우아한 기풍을 저속하게 훼손시켜 웃음거리를 제공했다. 전문이 다음과 같다.²⁷⁾

26) *Tho Chu Han Nguyen Du*, 504-505

27) 市古貞次 外 共編, 《日本文學全史》4 (東京: 學燈社, 1978), 306

娥眉山月半臨腹
形似平生孤柳柔
夜發傷產向散亂
招醫不來下憂愁

아미산의 달인 듯 반쯤 커진 배
그 모습 평생 외로운 버들처럼 부드럽다.
밤에 상산을 발해서 산란을 향하는데,
의원은 불려도 오지 않고 슬픔만 닥친다.

‘夷詩’가 행세하자 ‘華詩’·‘華歌’·‘夷歌’의 삼층 질서가 무너졌다. ‘詩’는 우아하고, ‘歌’는 속되고, ‘華’는 존귀하고, ‘夷’는 야비하다는 서열이 마침내 철폐되었다. ‘華詩’·‘夷歌’·‘華歌’·‘夷詩’가 서로 다르면서 화합하고, 相克하면서 相生하는 관계가 바야흐로 출현했다.

오늘날에는 외면상 ‘華’와 ‘夷’, ‘詩’와 ‘歌’의 구분이 없다. 개개의 ‘夷’가 대동의 ‘華’를 대신하게 되고, 구어 ‘歌’가 문어 ‘詩’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 민족 문학 내부에 서 ‘華詩’·‘夷歌’·‘華歌’·‘夷詩’의 서로 다른 원리와 그것들의 상호관계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 넷이 모두 항구적인 의의를 가진 자산이다.

V. 마무리

동아시아문학사는 문명권문학사여서 민족문학사보다 크고 세계문학사보다는 작은 단위이다. 서술 방법에서도 그 둘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민족문학사는 한 번만 일어난 일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한 원리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설득력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문명권문학사에서는 그런 난점이 많이 해소된다.

문명권문학사를 서술할 할 때에는 유사한 현상과 변화가 여러 민족문학사에서 한꺼번에 나타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해명을 할 수 있다. 여러 문명권문학사를 함께 다루는 세계문학사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나, 문명권문학끼리는 한 문명권 안의 민족문학보다 차이점이 더 많아 일관된 체계화로 고찰하는 것이 한층 힘들다.

민족문학사·문명권문학사·세계문학사 가운데 문명권문학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華’·‘夷’와 ‘詩’·‘歌’를 기본개념으로 삼아 동아시아문

학사의 전개를 총괄해서 파악하고자 한 시도가 그래서 가능하다. 민족문학사에서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세계문학사에서는 그런 원리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고 한층 다양하게 변형되어야 한다.

동아시아문학사를 통괄해서 서술하는 작업을 하면 문학사 이해의 이론을 정립하는 성과가 아주 뚜렷해졌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동아시아문학사는 부분적으로 거론하다가 세계문학사를 쓰는 작업을 앞당겨 한 탓에 이론 정립 작업이 미흡하게 된 점이 후회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동아시아문학사를 쓰는 작업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다음 연구자에게 기대한다.

다음 연구자는 자기 원리를 개발해 동아시아문학사를 쓸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로나 삼으면 수고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명권문학사에서 요구되는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공동의 준칙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 넘기기로 한다.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상이한 사실을 되도록 많이 포괄해 다루면서, 시대 변화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주제어 : 동아시아문학사, 문명권문학사, 민족문학사, 華詩, 華歌, 樂府 '華·夷', '詩·歌'

참고 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이 논문은 2002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5월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6월 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